담양군,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동…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의료·돌봄·주거·일상 지원 하나로… '원스톱 돌봄 체계' 구축

담양군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의료·돌봄·주거·일상지원을 하나로 연계한 '담양형 통합돌봄 체계'는 군민이 정든 집을 떠나 시설로 가는 대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군민 안심 복지'의 핵심이다.

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과 거동 불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기존의 영역별 돌봄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연계,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미 2024년 보건복지부와 2025년 전라남도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병원 동행, 도시락 지원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담양군은 올해 8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충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퇴원 환자 돌봄을 한층 강화한다. 관내 병원과 협약을 맺어 퇴원을 앞둔 환자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신체 기능 수준을 파악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연계하고, 맞춤형 방문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생활 지원에는 청소·세탁·식사 등 틈새 돌봄은 물론 영양죽·도시락 배달, 이미용·목욕·이불 빨래 방문 서비스까지 빈틈없이 채웠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까지 담양만의 특색 있는 복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서비스도 더욱 촘촘해졌다.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약 지도와 위험

약물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직접 찾아 처치와 처방을 돕는다.

수혜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부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군은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담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을 마쳐 민관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보건소를 비롯한 주민복지과 향촌복지과와 통합돌봄을 위한 업무 분장은 물론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가족·사회적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해 개인별 '돌봄계획'을 수립,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이종옥 기자

영광군, 건강과 웃음 싣고 행복드림버스 출발

건강·힐링·즐거움이 함께하는 이동형 행복센터

영광군은 지난 2월 10일 군남면 심향당경로당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통합 건강서비스 「영광행복드림버스」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광행복드림버스는 보건소 직원과 외부 강사로 구성된 팀이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힐링·행복 3가지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코스는 혈압·혈당 측정, 골다공증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 ▲힐링코스는 발마사지와 건강 스트레칭 ▲행복코스는 노래교실과 율동으로 구성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르신을 '오늘의 행복 주인공'으로 선정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총 100개소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2~3년간 방문하지 못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날 오늘의 행복 주인공으로 선정된 어르신은 "건강검진도 받고 발마사지와 노래까지 하니 몸도 마음도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렇게 행복 주인공으로 뽑혀 더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보건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강화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순천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본격 추진

명절·축제 연계 이벤트로 소상공인·시민 체감도 높인다

순천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경제 상생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먹깨비 가맹점 대상으로 기본 배달료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

이를 통해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시민 이용을 늘려 주문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한다.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첫 주문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이번 설 명절에는 2월 14일~2월 18일(5일간) 매일 500명에게 8,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순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주말 할인 이벤트(연중),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류 쿠폰 지급을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모두가 힘든 요즘,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배달앱 먹깨비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바란다"며, "생활 밀착형 이벤트를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2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3,015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1,184개소 증가했으며, 누적 회원 수는 27,875명, 일 평균 주문은 370건, 누적 매출은 7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화순군 부군수, 농축산업 현장 방문 점검

가축방역 현장 점검 및 바나나파프리카 재배 농장 방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호범 부군수가 관내 농업·축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바나나파프리카 재배 농장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 부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산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 시설 운영 상황과 소독 체계를 점검했다.

이 부군수는 관계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며, "군에서도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역 지원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곡면에 소재한 바나나파프리카 하우스 농가인 '화순부자농장'을 방문해 재배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생육 관리와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했다.

농가 관계자는 시설 유지 비용 증가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건의했으며, 이에 부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농업·축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농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축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암 어르신, '백세까지 팔팔하게' 함께 걸어요

휴대폰 활용 걷기 프로젝트… 도전 성공 시 영암사랑상품권

영암군보건소가 20일부터 어르신 건강 증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걷기 프로젝트 '백세 팔팔 걷기' 사업에 들어간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이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10월 중 짝수달에 휴대폰 걷기 앱을 활용해 총 5회 걷기에 도전하는 내용.

규칙적 걷기 운동으로 건강생활 습관 형성,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노후 대비 등을 실천하면 지원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걷기 앱 '워크온'을 켜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일 5,000보씩 20일간 10만보, 80세 이상 어르신은 매일 4,000보씩 20일간 8만보를 걷는 것이 도전 목표로, 이를 달성하면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을 준다.

휴대폰에서 워크온을 내려받아 영암군 공식 커뮤니티 '영암 백세 팔팔 걷기 사업'에 가입한 다음, '예약하기'나 '참여하기' 항목을 누르면 도전이 시작된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의 가장 좋은 방법인 걷기를 건강 활동, 지역 소비와 연결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참여로 건강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산림조합중앙회, 보성군 어르신 위해 쌀 지정 기탁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에 '사랑 나눔 쌀' 전달식 개최

보성군은 지난 7일 보성군노인회관 1층 녹차골청춘식당에서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지회장 선상규)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이 '사랑 나눔 쌀 지정 기탁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을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 임원, 보성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전달식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랑 나눔 쌀' 1,000kg(300만 원 상당)을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에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선상규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장은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산림조합중앙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쌀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은 "이번 쌀 지정 기탁은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보성군지회는 녹차골청춘식당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지원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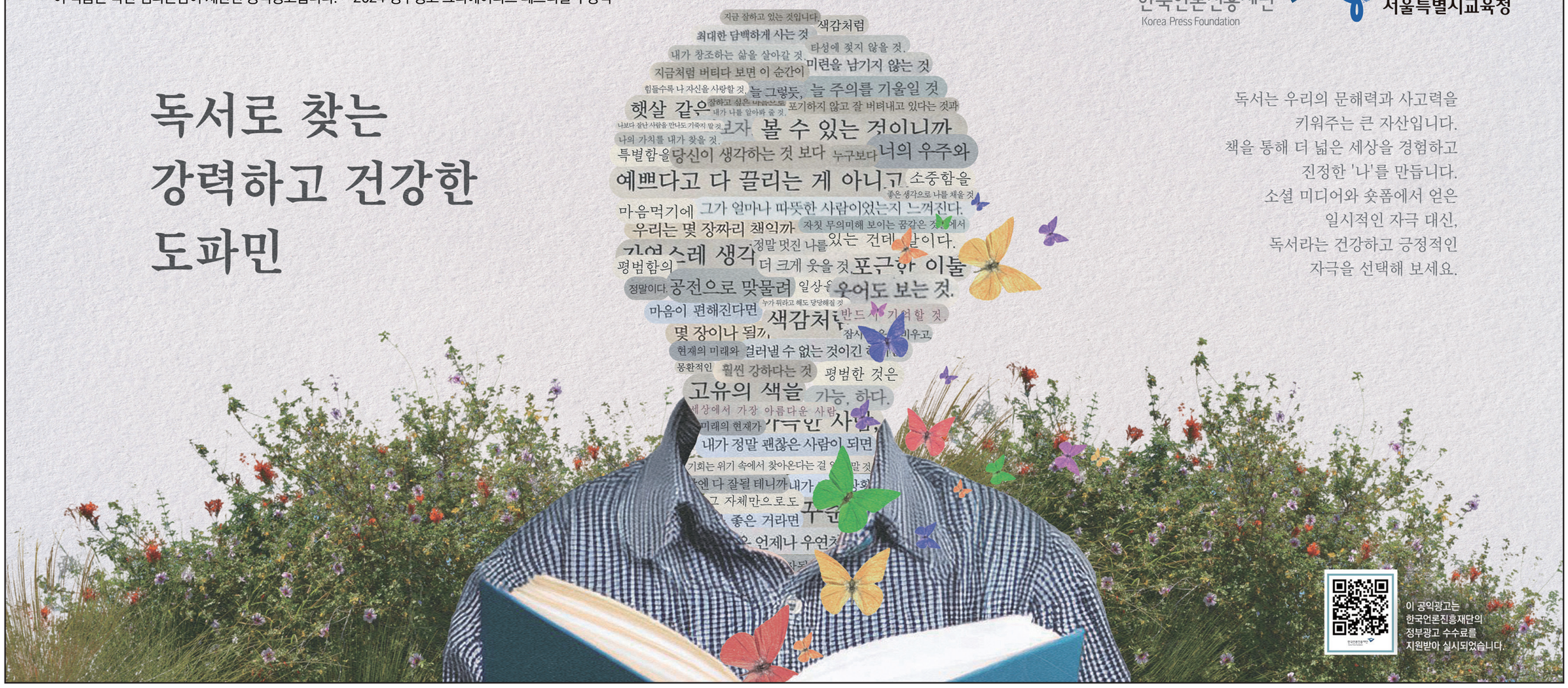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